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안건②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안)

2021. 1.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경과	1
II. 정책 추진 내용과 진행 상황	2
1.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2
2. 지난해까지의 진행 상황	4
III.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	10
1.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	12
2.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확대	15
3. 연대와 협력 기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18
4.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20
5. 범정부 추진체계 고도화 및 성과점검 체계 구축 ...	22
IV. 향후 추진일정	23

I. 추진 경과

- ◇ '19년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등 연속적인 충격으로 우리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 ◇ 소재부품장비는 공급망의 핵심이자 제조업의 근간(根幹)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선결 요건
- ◇ 그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중점 마련



⇒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안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II. 정책 추진내용과 진행 상황

1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 ◇ (소부장1.0) ①100대 품목 공급안정, ②산업전반 경쟁력강화, ③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
- ◇ (소부장2.0) ①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②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③추진체계 지속 강화를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구 분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소부장1.0, '19.8.5)	소부장 2.0 전략 (20.7.9)
① 전략	日 수출규제 긴급대응 대책 방어적 : 守城	미래 선점 +GVC 재편대응형 중장기 전략 공세적 : 攻城
② 대상	특정국가 + 현재 밸류체인 100개 품목	글로벌 차원 + 미래 밸류체인 338+ α 개 품목
③ 방식	개별투자유치 중심	글로벌 수요기업 구매력+대표 클러스터 활용 명확한 유치 전략/타겟 + 실효적 인센티브 ⇒ 맞춤형 유턴 지원
④ 내용	"기업간 1:1 협력" 국내 + 수요-공급기업 협력	민간 주도 "多:多 연대와 협력" 글로벌 + 해외 기업/연구소 협력까지 확장
⑤ 기타	대체처 발굴 등 다변화 지원 경쟁력위원회 + 수급대응센터	디지털공급망, 물류망 스마트화, 밀크런 생산거점 다변화(China+1), 대체처 DB 구축 'GVC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수급대응센터 338+ α 개 모니터링 기능 확대

① (소부장1.0) 공급망 안정화를 핵심으로 소부장 정책기반 마련

-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수출규제 3대 품목 포함, 공급망에 핵심적 이고, 안보적 중요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
 - R&D 투자, 신증설·수입다변화·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23~'25년까지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

- (산업전반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등 생산기반 및 세제·펀드 등을 통한 기업 성장기틀 마련
 -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체계적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 추진
- (강력한 추진체계)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 ('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② (소부장 2.0) 글로벌 차원으로 정책을 확장하고, 첨단기지와 강력 추진

- (글로벌 소부장 강국) 공급망 정책대상을 對日 100대 → 글로벌 차원 338+a개 품목으로 확장, '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에 7조원 이상 투자
 -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으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기술개발이 생산에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확대 등 기반구축 강화
- (첨단산업 클러스터) Big3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 집중유치
 - 소부장특화단지·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유치·유턴에 5년간 1.5조원 지원, 첨단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 * 상시근로자수 유지 요건 폐지, 세액공제 이월기간 5년 → 10년으로 연장 등
- (추진체계) 수급대응지원센터 기능을 對日대응→글로벌 공급망 대응으로 확대하고, GVC 재편 대응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③ 범부처 협력과 업무분담으로 정책 실행력과 내실화 추진

- 소부장 1.0 90개, 소부장 2.0 70개 정책과제를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

< 부처별 이행과제 현황 (개) >

구분	산업	기재	중기	금융	환경	과기	고용	국토	공정	행안	해수	관세	특허	계
소부장 1.0	39	7	10	7	6	9	3	2	2	1	-	3	1	90
소부장 2.0	41	6	12	-	1	6	1	1	1	-	1	-	-	70

- 소부장 경쟁력위가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보완

2 지난해까지의 진행 상황

- ◇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 全無, 공급 안정성 진전
- ◇ 생태계 내에서 공급망 강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 움직임 확산
- ◇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력 강화 법·제도 가동

1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에 뚜렷한 진전

- (공급안정) 日 수출규제('19.7월)로 인한 생산차질 全無, R&D·수입 다변화·생산확대·투자유치·M&A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화 진전

- (3대 품목) 국내생산 확대, 대체 新소재 투입 등으로 공급안정 실현

품 목		국 내 생 산	수입국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및 생산투입	■中 A사 생산 투입
	가스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美 B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벨 C사 생산 투입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 수출 중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대체소재(UTG)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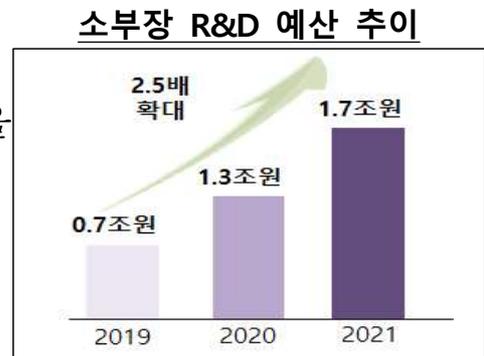
- (100대 품목)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 제고

- ▶ (수입다변화) 대체처* 발굴(70건) 및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대체품 적합성 테스트(11건)
* 화학 R소재(美3M, 美듀폰, 벨Solvay), 반도체 F장비(美AMAT), 화학 H소재(獨 Wacker 등)
- ▶ (재고확충) 보세구역 반출기간 연장(15일→필요기간), 보세운송 임시제공·검사생략 등(6,996건)
- ▶ (신증설투자) 공장 신증설(23개소) 및 인허가 절차 fast-track 적용(4개사)
- ▶ (M&A) 핵심전략품목 국내외 M&A(15건), 7개 프로젝트에 유동성 지원(16억 달러)
- ▶ (할당관세) 석영유리기판 등 소부장 장비·원재료 3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신규 6개)

- (자체 기술 확보)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등 기술개발에 약 2조원 투입

- 그 중 23개 품목(3대 품목 포함)은 '20년 시제품 개발완료, 434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독자 기술역량 확보

- 핵심전략품목 등 관련 IP R&D 지원 ('19~'20년, 391억원, 506개 과제)



② 소부장 산업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정책 활성화

- **(338+α 품목 관리강화)** GVC 재편 대응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대상을 對日 100개에서 글로벌 338+α개로 확대하고, 전략적 대응
 - (하이테크形: 158+α개) 기술확보를 위한 범부처 예산 1.7조원 확보
 - * R&D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R&D 고도화 방안(‘20.10월, 부처합동)」 수립
 - (범용形: 180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7천여개社 대상 수급동향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803건의 기업애로 해소
- **(핵심기업 집중지원)**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21.1월)하고,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 선정(‘20.10~11월)
 - 으뜸기업 기술확보 지원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21년 과제당 최대 50억원), 공공연구의 사업화 지원 등 강화
 - 소부장 강소기업 대상 R&D·보증·융자 등 강력 지원(‘20년, 1,689억원)
- **(GVC 네트워크 강화)** 獨 BMW, 벨 IMEC 등과 자동차·반도체 등 소부장 핵심분야 글로벌 혁신기관과의 협력R&D 확대(‘20년 30억원)
 - 소부장 기술교류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센터 개소(‘20.6월), 해외 공급망 거점으로 그리스·말련·멕시코 GP센터(Global Partnering) 개소(‘20.3월)
- **(첨단 투자유치)** 첨단투자지구* 신설 추진(개정법 발의 ‘20.11월) 등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 * 첨단기술제품 연구생산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수반 사업 영위 목적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 (외투유치) 현금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R&D 센터 유치**
 - * (예산) ‘20년 280억원 → ‘21년 600억원/ (한도) 30%→첨단 40%, R&D센터 50%
 - ** (R社) 반도체 장비 R&D센터 착공(‘20.12월), (K社)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R&D센터 투자신고(‘20.10월)
 - (유턴) 보조금 확대* 등 제도개선 완료, 18개 소부장 기업 유턴**
 - * 대상(비수도권→수도권 포함), 내용(입지·설비→이전비용 포함), 한도(100→150~300억원)
 - ** (D社) 초경량 車부품, (K社) 포토레지스트 원료, (N社) 친환경·복합소재 신발 등

③ 산업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 **(협력모델 확산)** 포토레지스트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 22건*의 협력모델 발굴·승인

* 제2차추(19.11월) 4건, 제3차추(20.1월) 6건, 제4차추(20.1월) 7건, 제5차추(20.10월) 5건

- 승인 협력모델에는 R&D(20년 370억원), 자금, 제도개선* 등 패키지 지원

* 정책금융(2건, 250억원), 장비도입심의추 처리기간 단축(3건), 청년의무고용 완화 (8건) 등

- **(다자간 협력지원 체계)** R&D부터 양산·사업화에 이르는 쏠과정에서 연구소·대학·협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반 신설·가동

< 협력 지원 플랫폼 >

구분	지원 내용	참여기관	실적(19~20년)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공공연구에 테스트베드 구축 → 기술개발 제품 실증·검증 지원	화연 기계연 등 15개 공공연구	203종 장비구축 (1,498억원)
신뢰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컨설팅, 성능개선 지원	재료연 한자연 등 42개 연구소·IP 등	843개사 지원 (410억원)
양산성능평가	상용화 단계 개발제품을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	반도체 협회 등 6개 협회·공공연구	262개 과제 지원 (750억원)

-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대학 연구원의 기업지원 체계화

	융합혁신지원단(20.4월)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20.12월)
구성	소부장 분야 32개 공공연구소	12개 우수대학
지원내용	기업 기술애로 해소, 인력지원 등	산학 협력R&D, 기업 기술 지원
지원실적	기업 기술애로 등 111건 해소	공동R&D 12건, 기술지원 42건(314억원)

- **(투자펀드 확대)** 17개 GP(운용사)가 참여, 8,626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산업부 1,125억원, 금융위 6,200억원, 중기부 1,301억원의 펀드 조성

- 이차전지 소재,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5건의 프로젝트 펀드(3,052억원)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3,564억원 투자 완료

- **(분야별 협력 플랫폼)**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 및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간 '연대와 협력' 협의체(Sector Deal) 구성

*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9.24) 바이오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실증·기술자문 등 협력 (디스플레이 협의체, 10.5) 핵심장비 개발, 사업재편 협업, 소부장 성능평가·사업화 등 지원

4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 본격 가동

- (경쟁력강화위원회) 범부처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19.10월 출범)로 기본계획·시행계획, 협력모델 승인 등 29건의 주요 정책 심의·의결

분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
정책 전반	· 경쟁력강화 추진전략, 2020년 소재부품장비 시행계획 등
핵심기술 확보	· 소부장 기초원천 기술 확보방안 및 R&D 고도화 방안 마련 · 100대 핵심전략품목·기술 선정 및 지원방안 수립
기업 간 협력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22건 승인, 세부지원 방안 마련
기업육성·지원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으뜸기업 등 체계적 기업 육성 대책 마련
이행현황 점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19.8) 75개 과제 정기 이행점검

* 「소부장2.0 전략」에 따라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구성 등도 추진 중

- (소부장 특별법) '01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고, 일몰법을 상시법化('20.4.1 시행)
 -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하고, 그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테스트베드 확충,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쏠주기 지원** 강화
- ④ (방식)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 ⑤ (체계) 경쟁력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소특회계) 독립적 재원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1월)

-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0년 예산 2배 확충(1.1→ 2.1조원)
- 정책실행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년 상반기 내 76% 조기집행

* '20년 소특회계 예산 분기별 집행률(%)
: (1Q) 42.2 → (2Q) 76 → (3Q) 92.3

연도별 소특회계 규모



5 다양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지원 강화) 「소부장1.0」과 「소부장 2.0」 정책과제 중 기업 애로가 큰 자금·인허가·인력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속히 완료

* 소부장 1.0 과제 90개 중 86개(96%), 소부장 2.0 과제 70개 중 31개 완료(44%)

구 분	주요 이행 성과 ('19.8~'20.12)
금융 (약 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 1,709건 약 2.8조 지원 • (신규자금 공급) 900건, 약 2.3조원 지원 • (1조원 규모 보증지원) 신보·기보 3,787건, 1.5조원 규모 지원(목표규모 초과)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 단축(75→30일) 12개소 13건,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24개소, 27건 승인 •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30일)) 솔브레인, SKC 등 4개사 우선 처리
인력,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 공공연구원 인력 128명을 128개사에 지원 • (인력채용) 해외전문인력 유치 21명, 연구인력 채용 20명 지원 • (장비이전) 공공기관 유휴장비 등 78개를 58개 기업에 이전

- (원스톱 애로해소) 소부장 기업애로 해소 Single-Window인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원스톱 해소 추진

< 수급대응지원센터 기업애로 해소 실적 ('20.12월말 기준) >

수 급 애 로			기술개발	간접피해	합계
물량 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16건	20건	43건	29건	13건	121건
특별연장근로	8개사 12개 사업장 1,898명		화학 인·허가 Fast-Track		11개소
금융 지원			① 금융위 2,609건 50,918억원(실적), ② 중진공 354건 1,000억원(실적)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와 시사점

- ◇ 소부장 정책·제도가 본격적 이행궤도에 돌입한 만큼, '21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위한 산업 생태계 주체 간 협업 중요성 더욱 확대
 - 특히, 기업 등 주체들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정책 효과로 연계하기 위해 정책과제의 보완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
- ◇ 나아가, GVC에 대한 대응을 넘어 친환경·디지털 산업 등 패러다임 전환 선도를 위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 역량 확충도 필요

구분	주요 실적·성과
<p>① 핵심품목 공급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순도 불화수소(불산액(12N급), 불화수소가스(5N급)) 양산 성공 (산업부) 100대 핵심품목 해외투자유치(EUV레지스트, 실리콘웨이퍼, 반도체장비 등) (산업부) 100대 핵심품목 재고 2~3배 확충, 설비투자, 수입다변화, M&A (산업부) '19년 추경 및 '20년 소부장 R&D 예산 2조원 투자, 핵심기술 확보 착수 (과기부·산업부·중기부) 환경·노동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대폭 단축 (환경부·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75→30일), R&D물질 등록면제확인(최대 14일→익일), 특별연장근로(1,898명), 공정안전관리 인허가(54→30일) 소부장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재부)
<p>② 소부장 강국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22건) (산업부·중기부) 소부장 으뜸기업 22개 선정(24년까지 100개 선정 예정) (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1차 54개사('19), 2차 46개사('20)) (중기부) 산학연 협력, 공급-수요기업 협력 기술개발, 실증·양산테스트 도입 (과기부·산업부) 정부 R&D 방식 전면 개편(복수형, 경쟁형, 정책지정 도입) (과기부·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R&D 공동관리 규정 및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20.10) 수립 (과기부) 테크브리지를 활용한 대학·연구원 보유기술 이전 및 상용화 R&D 신설 (중기부) 공공연구소의 對기업 밀착 지원 기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 (산업부) 우수대학의 기업 기술자립고도화 지원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출범('20.12) (산업부) 국가 연구역량 결집을 위한 3N 지정·운영('19.12~) (과기부) 소부장 중소기업에 약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중기부) 소부장 기업 기술특례상장 6건 (금융위)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 및 운용 (금융위·중기부)
<p>③ 첨단산업 세계적 클러스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투자지구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산집법 개정안 발의('20.11월) (산업부) 첨단유차유턴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및 지원제도 개선(산업부·과기부·중기부·고용부·공정위) 해외 M&A 세액공제 신설 및 국내 인수기업 유동성 대폭 확충 (산업부·기재부)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대학생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기반 마련 (산업부·기재부·교육부)
<p>④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0.10, 5차 완료)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회의(1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4차, 중기부), 기술특별위원회(6차, 과기부) 개최 기업애로지원 전담기관 운영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9.7~, 120건)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집행, '21년 2.6조원 확보)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시행('20.4) (산업부)

III.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방향

- ◇ 정책 추진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의 조기 가시화에 중점
- ◇ ①공급안정성 강화, ②글로벌 진출확대, ③연대와 협력 생태계 강화, ④첨단산업 유치, ⑤추진체계 고도화의 5대 축으로 강력 추진

※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21년 소특회계는(2.5조원) 상반기 중 70% 이상 조기집행

1 핵심품목 공급안정성 강화

- ① GVC 공급망 핵심품목,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2조원 투자
- ② 디지털 물류망, 밀크런 사업 등 공급망 고도화·다각화

2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① 으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 ② 개방형 R&D 및 해외 협력거점 확대 등 글로벌 진출 강화
- ③ 제조기반 디자인, 국제표준·해외인증 지원 등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3 연대와 협력 생태계 구축

- 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20+ α 개 발굴, 글로벌 협력모델 신설
- ② 대학·연구소·수요기업 등 실증평가·기술지원 확대 등 협력인프라 강화

4 첨단산업 클러스터화

- ①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② 전문인력 양성, 기술확보형 M&A 촉진 등 첨단기술·인력 유치 강화
- ③ 투자유치·유턴 세제·재정 지원 인센티브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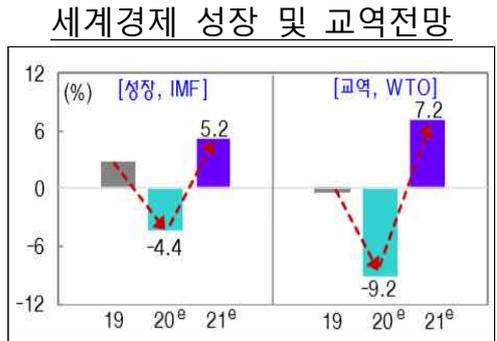
5 범정부 추진체계 고도화

- ①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소부장 정책 이행협의회 구성

◇ [대외] 경기개선 속 통상·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① (경기) 코로나 백신 상용화, 경기부양 등에 따라 경제활동 개선 전망

- * '21년 경제성장률 전망(OECD, %) : (세계) 4.2 (美) 3.2 (中) 8.0 (유로) 3.6 (日) 2.3
- * 세계교역 증가율(%), WTO<'20.10> : ('20^e) △9.2 → ('21^e) 7.2



② (통상) 美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

- * 美 정부의 CPTPP 복귀 여부, 미·중 갈등의 진행 추이, 국가 간 상계관세 부과 등

③ (경제구조)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 가시화

- * (친환경) EU·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글로벌 기업의 RE100 요구 확대 등 (디지털) 美 5G·AI 등에 3천억불 투자 공약, 中 5G 등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 예정

◇ [대내] 안정적 공급망, 산업 혁신을 위한 소부장 산업 중요성 지속

① (공급망)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수출 중 소부장 비중을 감안할 때, 상존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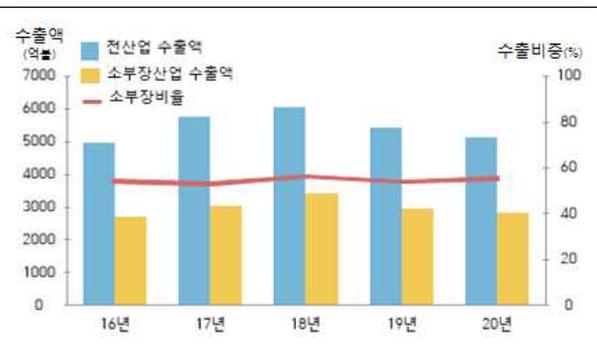
- * 전체 수출 중 소부장 비중(%): ('17) 53.1 → ('18) 56.4 → ('19) 54 → ('20^e) 55.3

② (친환경·디지털) 2050년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이 핵심으로 부각

세계 교역증가율 및 소부장 수출



전체 수출 중 소재부품장비 수출 비중



1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대응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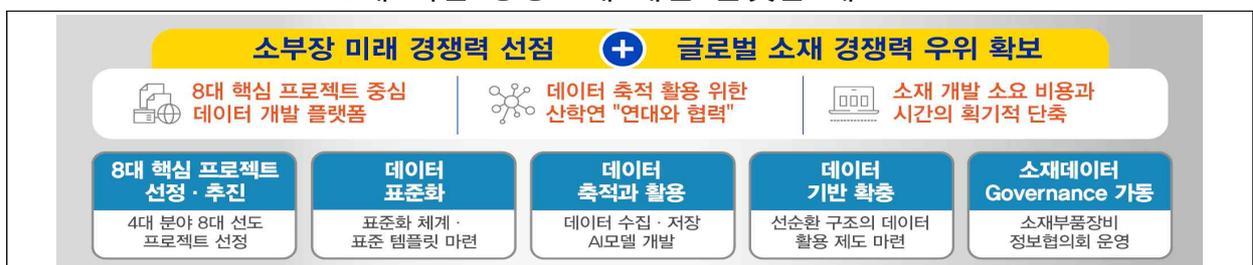
- ◇ (對日 100개) 기술자립, 생산확대·다변화, M&A 등을 통한 수급안정
- ◇ (對세계 338개) 하이테크 분야 기술확보, 범용 다변화 등 차별화된 관리
- ◇ (차세대 a개) Big3, 친환경 등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기술 선점

가. 핵심기술 내재화

- (기술투자 확대) 공급망 핵심품목, Big3·탄소중립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 2.2조원 집중 투자('20년 1.7조원 → '21년 2.2조원)
 - * '20~'22년 7조원 이상 투자, 특히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에 '21년 2.4조원 투자
- (대상품목) 공급망 안정(R&D 핵심품목) 및 미래 공급망 창출(미래 선도품목) 기술개발 Two-Track 전략 추진
 - (R&D 핵심품목) 338+a 중 High-tech 形 158개 품목 등 총 185개 품목 대상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R&D 중점 추진 과제 도출('21.上)
 - * 품목별 부품, 원천소재, 기초원료 모든 단계에 대해 기업·기술수출입 동향 등 분석 실시
 - (미래선도품목) 에너지, 바이오 등 기존 소부장 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등을 선정, R&D 추진
 - * 관련 전문가 등과 70여개 후보품목을 검토,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R&D 추진 예정
- (지원방식) 과제 총량제 완화*, 자율성 강화, 연구기간 연장** 등 지원환경 개선
 - * (연구기관)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 소특회계 과제에 참여제한(3책5공) 면제, (기업) R&D핵심기술 개발 시 중소·중견기업 R&D 참여제한(중소 3개, 중견 5개) 적용 예외
 - ** 일괄적 성과목표→연구자 제시 성과목표로 변경, 평가를 통해 연구기간 갱신가능 제도 도입
- (부처협업) 기초·원천연구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함께 달리기·이어달리기 트랙 신설·확대(534억원) 및 국방 R&D 연계투자 개시
 - * (함께달리기) '21년 5개 품목, (이어달리기) '20년 5개 → '21년 20개 품목 (국방R&D) '21년 K9 자주포 엔진부품, X-band 레이다용 MMC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74억원)
- (세제지원)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21.上)

- **(장비 자립화·고도화)** 개발 장비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 지원 강화 및 차세대 산업에서 필요한 **신유형 장비개발 추진**
 - 제조장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계 개발·구축** 및 **신산업(Big 3, 나노융합 등) 장비개발 로드맵 마련**(‘21.上)*
 - * (향후 계획) 사전 기업수요 분석 → 세부 장비품목별 상세 기획 → 신규 R&D 사업 추진
- **(특허지원)**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IP R&D를 의무화하고, 소부장 특허분쟁 대응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 강화(‘21.上)
 - IP R&D 지원 대상을 對日 핵심품목에서 對세계·국방 소재부품까지 확대(‘21년 404억원)하고 핵심전략기술별 특허맵* 구축·제공(‘21.3월)
 - * R&D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외국 다출원기업, 출원 주요기술 정보 등
 - ‘소부장 특허분쟁 대응 전담반’을 설치, 원스톱 특허분쟁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소부장 특허분쟁 모니터링 체계 신설 및 대응전략 지원 확대(기업당 연 6천만원→1억원)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신설(‘21.2월),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등 추진(‘21.3월)
 - *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총 지출액의 25% 감면
- **(신소재개발 플랫폼)**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유망 상용소재 8大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개시
 - * 저탄소친환경, 성장 유망성 등 고려, 그린모빌리티용 경량소재, 이차전지 양극소재 등 선정
 - 표준연·재료연 등으로 구성된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초소재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서비스 개발
 - * 표준연 등 4개기관이 소재연구데이터 센터를 설립(20.9), 기본구조데이터 수집방식 등 기초설계 완료

< 8대 핵심 상용소재 개발 플랫폼 개요 >



나. 공급망 고도화 · 다각화

- **(공급망 디지털화)** 기업 간 네트워크 디지털화 시범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입출항 등 주요 물류체계 디지털 전환 본격 착수
 - **(디지털 공급망)** ①국내외 현황 분석, ②우선 추진분야와 적용방안, ③정부·민간 협력방안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체 추진방안 수립('21.上)
 - **(디지털 물류망)** 천안·부산·인천 등 스마트 물류센터, 인천 항만 통합 플랫폼 등 첨단 해운, 물류 인프라 구축 개시('21.上)

* (스마트 물류) 지축·도봉 차량기지 완공 및 천안물류센터 착공('21.下)
 (스마트 해운물류) 부산인천항 플랫폼 고도화('21.上), 인천 부산센터 설계사업계획 마련('21.下)

- **(물류공급망 안정화)**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다변화 · 효율화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공동 물류체계(밀크런) 구축사업 착수('21.1월)

* 광주금형특화단지(고려정밀 등 24개사) 대상 시범사업 → 업종·지역 점진 확대

< 뿌리산업 밀크런 시범사업(안) >



- 탄소중립 등 에너지 · 산업 정책변화를 반영해, 산업VC에 필수적인 핵심광종 선정 및 '금속 비축 종합계획' 수립('21.下)
- **(다변화 지원)** 생산거점 다변화에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정보 · 컨설팅 · 자금 등 다변화 컨설팅 맞춤형 제공 · 확대
 - 공급선 발굴, 샘플구매 대행, 해외연구기관 알선 등 공급망 다변화 통합지원 서비스 개발 및 맞춤형 지원(KOTRA, '21.下)
 - 다변화 특별보증 · 보험지원 및 해외M&A 자금 보증 등 확대(무보, '21년)
- **(관리체계)** 핵심품목의 체계적 품목관리를 위한 **HS 코드 개편연구*** 추진('20.12월)
 - * 공급망 관리품목의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한 소부장 품목별 HS코드 연계분석 및 개편연구 추진

2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 **(으뜸기업)** 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新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 육성(‘24까지 100개)

○ 既선정 22개 으뜸기업에 대해 “으뜸기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전폭적 지원 추진(‘21.上)

* 산업부 등 지원 정책 담당 관계 중앙부처, 22개 으뜸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으뜸기업 지원 내용 >

- ▶ **(R&D)** 으뜸기업 대상 R&D지원(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 **(실증)**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 현장 Test-bed 개방 등
- ▶ **(사업화)**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지원
-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도입 → 15일내 개선여부 회신 등 신속일원화 서비스 제공

○ 미래 산업트렌드를 반영, ‘21년에는 바이오·에너지 등 차세대 유망 新산업 분야까지 선정 범위를 확대, 20개 내외 신규 선정 추진(‘21.下)

□ **(강소기업)** 선정기업 100개社 대상 R&D·투자·보증 등 미래성장 집중 지원

* ‘19.12월 1차 강소기업 54개社 선정, ‘20.10월 2차 강소기업 46개社 선정

○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21년 125억원), 보증한도 및 전담지원반 확대*

* (보증한도) 일반기업 15억원→강소기업 30억원 / (강소기업 전담지원) ‘20년 7명→‘21년 12명

○ 강소기업 주도 벤처투자기금 조성*(‘21년 20억원), 예비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설(‘21년 50억원) 등을 통한 기업 단계별 성장사다리 강화

* 강소기업협의회가 ‘21년 20억원 출자, 소부장 스타트업에 엔젤투자 추진(‘24년까지 100억원)

□ **(스타트업)** ‘20년 선정된 20개社 지원* 및 AI제조, 로봇, 나노 등 ‘게임 체인저’형 유망 스타트업 20개사 추가 발굴·선정(‘24년까지 100개)

* 사업고도화자금(최대 2억원), 융자(최대 100억원), R&D(가점5점) 후속사업 연계 등

나.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 (개방형 기술협력) 글로벌 수요기업·연구기관 등과 국내기업 간 공동 R&D, M&A 연계형 R&D 트랙 신설 등 글로벌 R&D 확충('21년 17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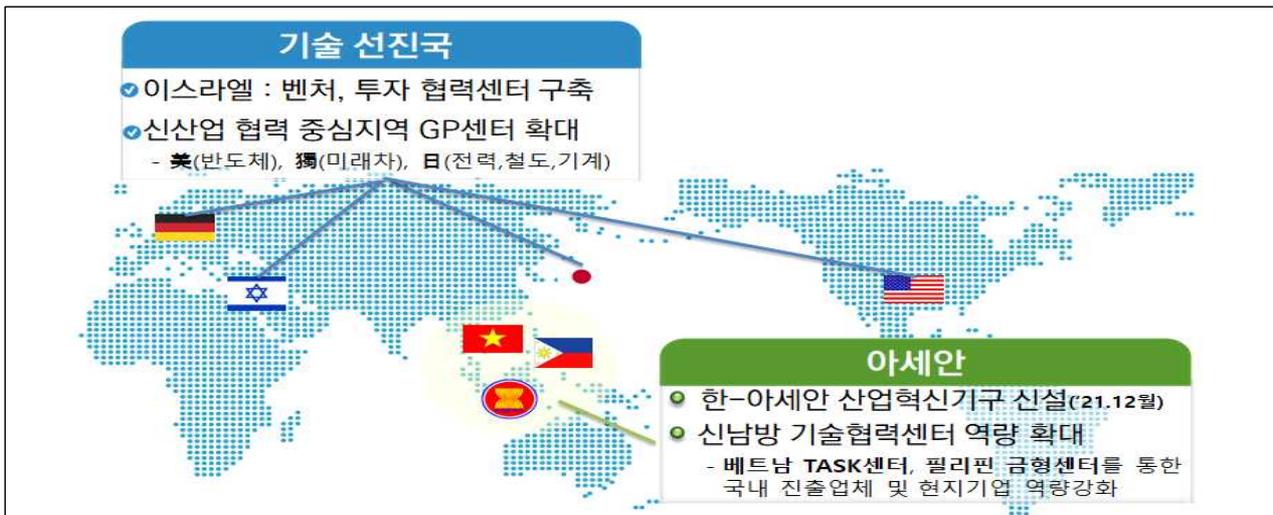
< '21년 신설 글로벌 협력 R&D >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 혁신기관 공동R&D	獨프라운호퍼, 美NIST 등 글로벌 파트너와 Top-down방식 공동R&D 추진
글로벌 수요연계형 X&D	글로벌 수요기업-국내 공급기업 간 구매조건부 R&D 추진 M&A, IP인수 등 해외 기술확보를 전제로 후속 국제 공동R&D 지원

- 경쟁력있는 해외기관 참여확대를 위해 R&D 매칭부담을 최대 20%p 완화*, 기술료 감면 검토 등 인센티브 확충 추진

* R&D참여 민간부담금 개선: (대) 67→50%, (중견) 50→30%, (중소) 33→25%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아세안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러시아·이스라엘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 다각화



- (소부장 투자펀드) 소부장 기업에 60%이상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전용 정책펀드 등을 작년에 이어 약 7천억 규모로 신규 조성

<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 계획 >

구분	'21년 결성목표 (정책자금)	중점 투자 대상
금융위	5,000억원 (2,40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기업 등
중기부	1,000억원 (600억원)	.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 해외진출기업 등
산업부	800억원 (400억원)	. AICBM 등 차세대 유망 선도기업

다.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 **(디자인·창업 지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각각 2개소씩 확대*하고, 디자인·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지원 강화
 - * 제조혁신센터: ('20년) 서울G밸리, 창원, 반월시화 → ('21년) 스마트산단 2개소(80.7억원)
 -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창업 전문랩: ('20년) 12개 → ('21년) 14개
-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기업 인프라 연계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소부장 창업기업 발굴 추진
- **(국제표준 선점)** 그래핀, 탄소섬유, 첨단 세라믹 등 첨단소재 3개 분야 로드맵에 따라 연내 9종*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획득 추진
 - * 그래핀 4종, 탄소섬유 3종, 파인세라믹스 2종 등
- **(표준소재 개발)** 일본 수출규제 대응 40개 표준물질을 연내 개발 완료하고, 이차전지 등 3개 분야 차세대 표준물질 개발 착수('21.4월)
 - * 화학·바이오·금속·전자 등 40개 +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10개 품목 추가 발굴
- 개발된 표준물질은 표준과학연구원, KTL 등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에 보급하고, 국제표준물질등록을 통해 해외수출도 병행 추진
- **(무역기술장벽 극복)**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 운영 개시('21.6월)
 - * 의료·방역용품,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포스트코로나 관련 소부장 품목 우선 선정
- 소부장 해외 기술규제 심층 분석 및 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TBT 대응지원센터」 신설('21.1월)
- **(해외인증지원)** 소부장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 우선지원 제도화
 - * '20년 155개社 389개 인증 지원(38.2억원) → '21년 700개社 내외 지원 추진

3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확산

가.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 **(협력모델)** 해외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최초로 도입하여 협력모델 글로벌 차원 확장('21년 국내20, 해외a → 20+a개)
 - * (예) 글로벌 완성차 기업(수요)과 국내 부품기업(공급) 간 구매조건부 R&D 기반 협력 등
- 협력모델 분야를 **Big3** 등 신산업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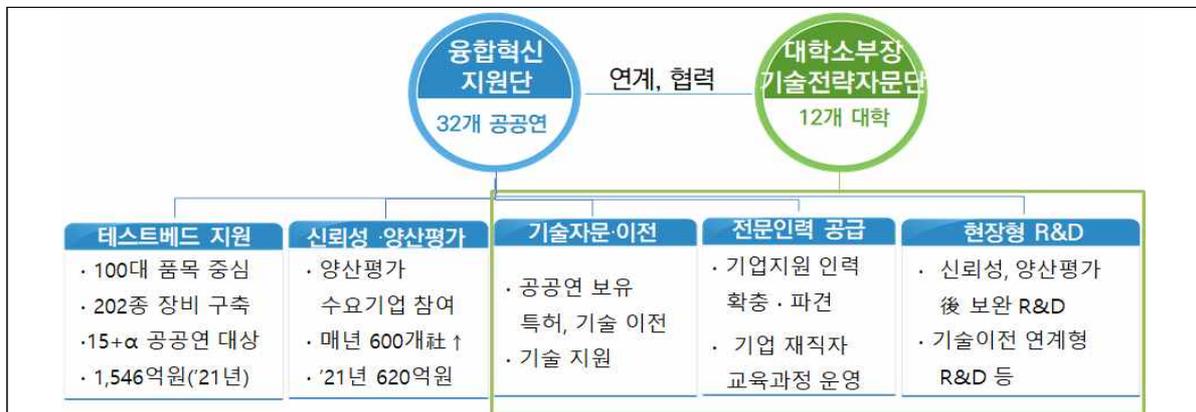
< 협력모델 확대 방안 >

구분	현재	'21년 확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심	핵심전략기술 + 신산업
참여주체	국내 수요기업-공급기업	글로벌 수요기업까지 확장
인센티브 강화	유형별·개별 인센티브 중심	공통 인센티브 강화 병행 ① R&D 민간부담률 완화*, ② 동반성장지수 평가우대 등

- **(시장조성)** 기술개발, 실증화를 거친 우수 소부장 구매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혁신조달 등 공공기관 역할 강화
 - 공공기관의 소부장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보제* 도입 검토 및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기관 간 공동 R&D** 추진
 - * "공공기관의 소부장 구매 계획 조사 및 수요 예보제 도입" 검토 위한 용역 추진('21년)
 - ** (예) 발전 5사간 가스터빈용 부품 공동R&D 기획 및 개발·실증 추진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채택 품목의 혁신제품 연계 및 에너지공공기관의 수요품목 지정확대 추진
 - 대기업 보유 빅데이터, 특허 분석 등을 활용한 수요기술 DB 구축('21.6월) 및 상생형 구매지원 종합정보망 구축('21.9월)

나.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 (생산지원 기반구축) 기술개발→생산까지 연계되는 사업화 플랫폼 구축
 - (테스트베드)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Test-bed 구축을 확대*하고('21년 1,546억원), 신뢰성 활용지원 추진('21년 220억원)
 - * ('19년) 66종, 104억원 → ('20년) 137종, 1,393억원 → ('21년) 202종, 1,546억원
 - 장비 상세정보(사양·담당자 등)를 DB화, 기업·지원기관에 배포('21.上)
 - (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등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지원('21년 400억원)
 - '21년 공급안정화가 목표인 20대 핵심전략품목 및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R&D 성과 우선 지원을 통해 성과 극대화 추진
- (기업애로 지원) 32개 공공연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해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 수요가 큰 다분야·융합형 애로해소 지원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소 인력 파견을 통한 R&D 신규 개시
 - * '21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59억원, 산업부), 인력 연계형 R&D(45억원, 과기부)
 - 지원성과 평가기준을 마련('20.12월), 평가결과를 기관평가예산 등에 반영('21.下)
 -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중기중앙회 등에서 발굴한 기업애로를 현장 밀착 지원하고, 애로기술 개발·고도화 추진('21년 314억원)



4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21년 2월 지정 예정인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차기 경쟁력위, '21.上) 및 지원
 - 인프라, R&D, 고도화 지원 방안 등 범정부 지원방안 확정 추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R&D 우대, 실증비용(1억원) 지원 • 32개 공공연 Test-bed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조금 지원 • Cash grant 지원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특구와 연계 : 200여개 규제 Free화 • 핵심소재 개발·생산 및 긴급수급대응을 위해 환경 Fast-track 강화 • 규제애로에 대한 즉각 검토(15일내) 	
공동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소요비용 30%) • 공동 비축시설(토지 무상임대, 소요비용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 다변화 지원 •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 (첨단투자지구) 첨단투자지구 도입·지원의 법적근거 완비 후 부처 합동 '(가칭)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 마련*('21.下) 및 후보지구 발굴
 - * (예) 첨단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임대부지 제공 및 임대료 감면, 각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원, 토지이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현 산집법 개정안 상 인센티브 포함

나. 첨단 기술·인력 유치 강화

- (전문인력 지원) 소부장 분야 기술인력 실태 수급동향조사*를 실시('21.上)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한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수급 지원
 - * 소부장 분야별 기술인력 수요, 공급 현황 및 향후 인력 수급 예측 등
 -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확대에 대응, 석박사급 기술인력 490여명 양성* 및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대학 신입생 4,761명 증원
 - * ('20년) 탄소복합재 등 7개 분야 435명, 102억 → ('21년) 8개 분야 494명, 150억원
 - 전문인력이 필요한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전문연구요원 배정,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등 추진
 - * 연구인력 채용(최대 3년) 또는 공공연 전문인력 파견(최대 6년) 시 인건비 50% 지원
 - *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신설('21년 36억원), 소부장 계약학과 등

- 반도체 고급 퇴직인력 공공뽑 채용 확대('21년 20명 내외) 및 포닥 중심 소부장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21, 45억원)

* 연세대(미래자동차), 성균관대(에너지·환경) 등 2개 연구단 포닥 34명 既채용('20.5)

- (해외인력 유치) 우수 외국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1.1분기)

<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

구분	기존	개선
감면액 확대	5년간 소득세 50%	소부장 분야 3년간 70% + 2년간 50%
인력요건 강화	외국인 연구원	① 이공계 등 학사학위 + 5년이상 R&D 경력 ② 이공계 등 박사학위 + 2년이상 R&D 경력
취업기관 확대	외투기업 R&D센터	기업부설연구소.R&D전담부서, 정부출연연,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M&A) 공급망 핵심기술 보유기업,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쟁력 보완 한계기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M&A 지원 중점 강화*

* 핵심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에 대한 M&A, 기술제휴 등 기술확보 전략지원('21년, 14억원), 소부장 한계기업 설명회, 유망산업 전략발표회 등('21년 연 4회, KOTRA)

- 핵심전략기술 확대에 대응하여 M&A 세제지원 대상 확대('21.上) 및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한 유동성 지원 지속(2.5조원)

다.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 (투자유치)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대폭 강화 및 보조금 등 5년간 재정지원 1.5조원 지원 추진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상향 (대기업 3%/중견 5%/중소 12%) · 세액공제 적용요건 중 ① 매출액 중 R&D비용 비중(2%↑), ②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비중(10%↑), ③ 상시근로자 수 유지요건 폐지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소부장(30% → 40%), R&D센터(40% → 50%) 외국인 직접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 확대 및 국비 부담비율 10%p 상향 적용

□ (유턴) “비용절감형” 및 “시장확보형” 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화지원 확대

- (제도개선) 기업 수요를 반영, 외투지역 유턴 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지원 수요 적극 발굴
- (구매확대) 수요기업의 협력사 유턴 지원(물량보장,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장려 및 동반성장평가, 공정거래협력평가 우대 등 신설
- (스마트 리쇼어링)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 우대 지원(기업당 최대 11억원) 및 ‘유턴전략품목(30개, ’21.上)’ 선정*을 통한 R&D 등 집중 지원

* 민관 합동으로 기술성·경제성·생태계 파급효과 등 분석을 통해 발굴·선정(’21.5월)

유턴법 · 외촉법 개정	·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유턴법시행규칙·고시 개정	·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일로부터 1년→ 2년) · 국내사업장 신증설기한 연장(선정일로부터 3년 → 5년) · 생산량기준 다양화(매출액 기준 생산량 축소 판단 →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보조지표 개발)
유턴 보조금 고시 (신설)	· 최소 상시고용여건(現 20명이상) 폐지 → 고용·투자액 등으로 지급비율 차등 · 투자이행기간 감축(5년 → 3년)

5 범정부 추진체계 고도화 및 성과점검 체계 구축

□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GVC재편, 미래 산업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다각화

- 경쟁력위 의결 정책 및 소부장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체계를 점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보고
- 경쟁력강화위 산하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 운영(’21.上)을 통해 GVC 변화 동향 파악, 정책방안 마련 등 기민하게 대응

□ 강력한 정책이행과 성과 도출을 위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정책 이행 협의회(가칭)」를 구성, 국민체감형 성과 확산 노력 추진(’21.上)

IV. 향후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담당
		1Q	2Q	3Q	4Q	
①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						
가. 핵심기술 내재화						
① 소재부품장비 기술투자 확대	▶ 기술개발 공고 및 시행(2월)					산/중/과
② 차세대 기술 세제지원 강화	▶ 차세대기술 R&D세액공제 추가(2월)					산/기
③ R&D지원환경 개선	▶ 기업의 R&D 참여기준 완화(6월)					과/산
④ 장비 핵심기술 확보	▶ 신산업장비개발 로드맵 수립(6월)					산업부
⑤ 특허지원 강화	▶ IP R&D 의무화(6월)					산/특허
⑥ 신소재개발 플랫폼	▶ 핵심 프로젝트 분야 선정(4월)					산업부
나. 공급망 업그레이드						
① 디지털 공급망 구축	▶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수립(6월)					산업부
② 디지털 물류망 구축	▶ 스마트 물류센터.항만통합 플랫폼 구축(6월)					국/해
③ 밀크런 등 공동물류체계 구축	▶ 밀크런 시범사업 착수(1월)					산업부
④ 희소금속 공급 안정화	▶ 금속 비축 종합계획 수립(12월)					산업부
⑤ 국가별.품목별 다변화 지원	▶ 공급망 다변화 통합지원 서비스(12월)					산업부
②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① 으뜸기업 육성	▶ 지원협의회 구성.지원 및 추가 선정					산업부
② 강소기업 육성	▶ R&D.보증 등 지원(2월)					중기부
③ 스타트업 육성	▶ 추가 선정 공고(2월)					중기부
나.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① 글로벌 R&D 확충	▶ 사업 선정 공고(3월)					산업부
② 아세안 협력 강화	▶ 한-아세안 협력기구 신설(12월)					산업부
③ 소부장 투자펀드 조성	▶ 7천억 규모 투자 펀드 신규 조성(12월)					금/중/산
다. 제조 소프트웨어 강화						
① 디자인.창업 지원	▶ 제조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산/중
② 국제표준.표준소재 개발 강화	▶ 차세대 표준물질 개발 착수(4월)					산업부
③ 무역 기술규제 정보 제공	▶ 10x10 기술규제 정보맵 운영 개시(6월)					산업부

주요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담당
		1Q	2Q	3Q	4Q	
④ 해외인증지원	▶ 해외인증 지원 사업공고(2월~)					중기부
③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가.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①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 협력모델 발굴·선정					산업부
② 공공기관 소부장 우선계획 수립	▶ 기관별 우선구매계획 조사·수립(6월)					산업부
③ 중소기업 구매확대	▶ 수요기술DB, 상생형 구매지원 정보망 구축(9월)					중기부
나.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① 테스트베드 구축	▶ 테스트베드 장비편람 배포(6월)					산업부
② 신뢰성 바우처	▶ 신뢰성 활용 지원사업 공고(7월)					산업부
③ 양산성능평가	▶ '21년 사업 추진 공고(9월)					산업부
④ 융합혁신지원단 지원확대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3월)					산/과
⑤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 '21년 기술애로 자문 추진(3월)					산업부
④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선정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6월)					산업부
② 첨단 투자지구 도입·지원	▶ 첨단투자지구 운영계획(안) 마련(12월)					산업부
나. 첨단 기술·인력 유치 강화						
① 소부장 기술인력 실태조사	▶ 기술인력 실태 수급동향조사(12월)					산업부
② 첨단분야 기술인력 양성	▶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수립(4월)					교육부
③ 공공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	▶ 공공연 파견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월)					중기부
④ 반도체 퇴직인력 공공팹 채용	▶ 나노중기원 등 신규채용(4월, 7월)					과기부
⑤ 해외인력 소득세 감면제도	▶ 조특법 시행령 개정완료(3월)					기재부
⑥ 해외 M&A 세제지원 확대	▶ 핵심전략기술 대상 추가 확대(6월)					산/기
⑦ M&A를 통한 기술확보 지원	▶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 계획 수립(3월)					산업부
다.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① 첨단분야 투자 세액공제 강화	▶ 조특법 시행령 개정완료(3월)					기재부
② 유턴 지원 확대	▶ 유턴 전략품목 선정·지원(5월)					산업부